

“백제 성왕은 일본 왕 겸했다”

외국어대 흥윤기 교수 논문서 주장

백제 성왕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부분 개정해야 할까? 6세기 무렵 백제를 삼국 최고의 문명국으로 중흥시키고 일본에 불교문화와 전파한 성왕(523~554 재위). 그동안 역사학계는 <일본서기> 중 흘명천황 15년조 내용과 <삼국유사> 중 성왕 32년조에 기록된 '성왕은 최지존(지금의 총나 옥천 또는 보은)에서 신라의 북병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정설로 여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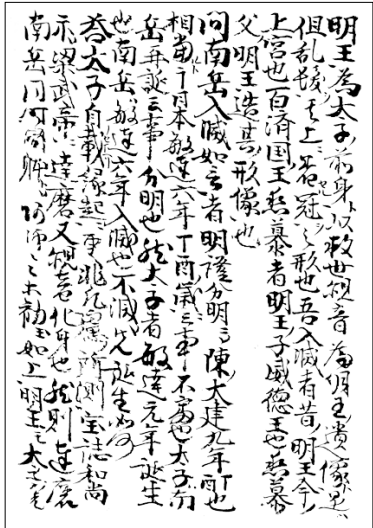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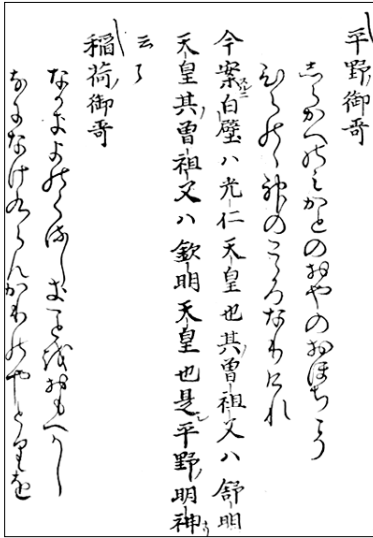
하지만 그동안의 정설을 뒤엎는 '백제 성왕은 일본 왕까지도 겸임했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일본문화담당 흥윤기 교수(사진)가 발표해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흥 교수가 이 같이 주장하는 고증적 근거는 <대초자>와 <성예초> 그리고 일본



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기록돼 있다. 또 나라대학 나카가와 토모요시(中川友義) 교수의 논문 <일본에 도래한 신들>에서는 '제1신전은 성왕, 제2신전은 구도왕(은조), 제3신전은 고개신(비류왕과 근초고왕)이 모셔져 있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저명한 사학자 고바야시 야스코(小林惠子)가 1991년 저술한 <두 개의 얼굴의 대왕>에서 '백제 성왕은 일본에 건너와 흘명천황이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교토산업대 역사학과 이노우에 미즈오(井上満郎) 교수의 논문



일본 모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대초자>(사진 위)와 <성예초>(사진 아래)는 '백제 성왕이 일본왕을 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흥 교수는 2000년 전에도 마키 말기에 쓰여진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일본 정형시조인 와가의 창시자 또한 왕인 박사였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1970년대에 발표한 바 있다. 왕인 박사는 4세기 백제 근초고왕(재위 346~375) 집권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한자 보급을 물론 백제 의 우수한 문화와 기술을 전수한 학자다.

노병철 기자 sasimari@buddhapia.com

일본고문서 '대초자' '성예초' 근거로 제시 교토대 교수 우에다마 "日 사학자들도 인정"

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논문 등이다.

일본사학자 후지와라노 키스케(藤原清輔)의 저서 <대초자, 1156~1158>는 고대 일본 왕실과 귀족들이 즐겨 부르던 일본 정형시가 '와가' 모음집으로 일본 시가 연구의 중요한 고전으로 평가되는 자료다. 이 고문서의 내용 중 '고우닌천황(770~781 재위)의 어자(간무천황)의 어조(조부)야말로 히라노신(백제 성왕)의 증손자이노라'라는 대목이 흥 교수가 주장하는 '백제 성왕이 일본 왕을 겸했다'는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일본 법률사에 대한 모든 정보와 비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예초, 1394~1427>의 내용도 흥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증자료로 신빙성을 더 하고 있다. 이 문서는 '백제 성왕의 전신은 지금의 성덕태자이다. 따라서 이 구제관음상은 백제 위덕왕이 아버지 성왕을 추모하

<헤이안의 풍경, 1994>에서 '히라노신사에 모셔진 제신은 백제에서 건너 온 금래신(今來神)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교토에 소재한 히라노신사(平野神社)는 서기 794년 간무천황이 수도를 교토로 천도한 기념으로 세운 사당이며 금래신 또는 흘명천황, 히라노신이란 명칭은 이미 일본사학자들에 의해 백제 성왕으로 판명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본 교토대 사학과 우에다마 사야키(上田正昭) 명예교수는 "백제 성왕은 일본 왕을 겸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흥 교수의 연구논문은 일본 고문서와 논문을 바탕으로 고증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이 때문에 있어서는 일본 사학자들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의 진위여부는 양국의 역사 교과서를 수정할 정도로 중요한 대목인 만큼, 일 불교사학자들의 충분한 연구와

불자-기독교 교수 학술대회

'붓다와 예수의 만남' 주제로

한국불자교수연합회(회장 김홍표)와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회장 이종오) 공동주최로 '제1회 불자-기독교 교수 공동 종교

간 대화 학술대회'가 5월 19일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붓다와 예수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양대 종단에 속한 교수들이 학술적 교류를 통해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발표되는 논문으로는 서울대 우희

중 교수의 '불자가 본 예수' 한신대 김경재 교수의 '기독교에서 본 붓다' 등 총 4편이다.

특히 우희중 교수는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진부위적인 불교적 해석으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 '건축정신과...' 학술대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은 '건축정신과 불교 교육의 근대화'라는 주제로 4월 21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대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해 보고 창조적인 비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대회는 부천대 김광식 교수의 '명진학교의 건축정신과 근대 민족 불교관의 형성과정'과 동국대 고영섭 교수의 '동국 교육 100년과 불교연구' 조계종 불학연구소 박희승 팀장의 '불교 4편의 근대화와 종교 교육 체계' 등 총 4편의 논문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광식 교수는 논문을 통해 "1906년 설립된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는 불교계 교육 분야에 혁신을 기한 추진제 역할을 해왔다"며 "명진학교의 건학 이념이라 할 수 있는 불교정신양식, 대승 보살행, 민족 현실에 다가가려는 적극성 등을 통해 앞으로도 인재발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통 강원에 집중된 승려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박희승 팀장은 "동국대 불교대학과 불교학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병철 기자

조선왕조실록 반환 촉구 "5월 10일까지 입장 밝혀라"

"5월 10일까지 도쿄대 총장이 직접 조선왕조실록 반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공동의장 월정사 주지 정법·불선사 주지 철안 스님, 이하 환수위는 4월 17일 일본 도쿄대학 도서관 2층 소회의실에서 도쿄대측 관계자와 조선왕조실록 환수를 위한 2차 협상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3월 15일 1차 협상에서 도쿄대측이 4월 17일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해 그 결과를 듣기 위한 자리. 그러나 도쿄대측 대표로 참석한 도쿄대학 부속 도서관 사사카와 사무부장은 3월 15일 조선왕조실록 반환요청서를 받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지만 도쿄대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재산 처분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못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환수위 김원웅 의원은 "한국으로부터 가져갈 때 무슨 규칙과 절차에 의해 가져간 것이 아니고 강탈한 것을 기약하라"며 "5월 10일까지 조사 증진발표회 총장이 직접 나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수위는 이날 협상을 마치고 도쿄대 학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선왕조실록의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김두식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8>

자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간적으로 꽃을 피워내고 또 그것을 사라지게 한다.

이와 같이 자연 현상의 과학은 선형적이지 않고 지수함수적이다. 오늘과 내일의 변화가 같은 정도만큼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와 오늘의 변화보다 오늘과 내일의 변화는 수배가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를 수학에서는 지수함수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한다. 시간에 따라서 지수함수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선형적인 증가가 아니라, 갈수록 더욱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매우 조금씩 증가해서 느낄 수 없으나, 갈수록 더욱 증가폭이 커져서 나중에는 한 그래프에 표시할

전류와 매우 큰 전류를 이용 하지만, 이러한 지수함수적 증가의 특징은 인젠가는 증가가 멈추게 된다는 점이다.

만개한 꽃이 지고 나면 5월의 신록이 시작할 것이다. 신록의 시작 역시 지수함수적이 될 것이다. 옛 중국 명필 왕희지는 불후의 명작 '난정서'에서 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인생의 유한함을 노래하기도 했다. 지나가는 것에 아쉬움, 그리고 기억 없는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벚꽃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피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지겹고 피곤하게 느낄 것이다. 아마도 그 다음 변화를 기다릴 것이다. 마치 유한한 인생을 아쉬워 하지만, 영원히 이대로 죽지 않고 싶다고 하면 상상할 수

꽃이 피고 지는 모습 인생사와 흡사 삶이 영원하다면 그 역시 두렵지 않을까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벚꽃이 피는 정도를 매일 관찰하면 지수함수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지수함수적인 변화는 과학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디지털과 같은 신호를 처리하는 반도체 트랜지스터나, 20세기 빛의 혁명을 일으킨 레이저의 동작에서 역시 지수함수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디지털 신호처리에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는 높은 입력 전압이 들어오면 전류를 흘리고, 낮은 입력 전압이 들어오면 전류를 흘리지 않는 스위칭 특성을 가지으로써, 1과 0신호를 처리하게 된다. 실제로 입력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트랜지스터 전류를 측정하면 전류 증가는 지수함수적이다. 마치 벚꽃이 지수함수적으로 피듯이 말이다. 실제로 회로에서는 0전압과 1전압에서 흐르는 매우 작은

않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 따로 빛과 그림자와 같은 존재의 모습일지 모른다.

아름다운 봄, 곧 부처님 오신 날을 맞게 된다. 아름다운 계절, 불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와 관계없이 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부터, 공의 원리를 체득하는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비어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꽃이 필 수 있겠는가. 꽃이 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피어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만물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러한 변화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마일지 모른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하고 고민하는 것 대신, 오히려 이 시절에 같이 살아가는 이웃사람들, 자연, 그리고 우주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공의 진리와 자비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팔자(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넘어 남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해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실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집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신 및 책자선정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인사말씀

삼보전 귀의하옵고,

지난 불기 2550(2006)년 4월 20일(음, 3월 23일) 대전 유성 유스호텔에서 (재)한국불교 법륜종 제5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일기불순에도 불구하고 먼길을 찾아와 주신 중정예하, 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께 삼배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지면으로나마 인사 올립니다.

(재) 한국불교 법륜종 제5대 총무원장 석고산 합장

■ 총무원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67번지
전화 041)734-5371-2